

세상은 그저 하염없이 제 갈 길 가는 것이 소임이다



시즌 III

<12> 인도-김해성



많은 방문객들로 붐비는 인도 델리의 자마마쉬드 광장.

여행 전부터 몸이 편치 못했던 이유로 출발 때부터 몸이 힘이 든다.

감기의 뒤끝이 좀 알았는데 거의 한 달이 다 되도록 기침이 멈추질 않는다. 델리를 향해 출발한 비행기 안에서 내내 계속된 기침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민망했다.

공항에 도착,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둘러본 공항은 예전 2004년의 그 곳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 규모나 시설이 이전 공항을 리모델링한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한 것 같다.

인도의 잠재력과 뉴리터칩을 공항을 보면서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일행들과 함께 택시 네 대에 나누어 타고 거의 한 시간가량을 달려 숙소로 도착했다. 도착 시간은 오후 7시, 저녁 식사를 위해 숙소에서 짐을 풀고 바로 로비에 모여 식당에 가기로 했다. 호텔방은 작기도 하지만 녹록한 기운으로 찜찜하고 답답했다. 게다가 뜨거운 물마저 쫄쫄 나온다는 한국이라 일행들의 불만도 만만치 않다.

오래 전 인도여행 때 왔던 올드 델리(Old Delhi)의 그랜드 바자르 중앙에 위치한 호텔. 두 번째 방문이다. 십 수 년이 훨씬 지났지만 그 모습 그대로 변화는 없어 보인다. 거리는 온갖 오물과 쓰레기들로 뒤덮여 있고 그 안에 인간과 짐승이 뒤섞여 혼란스럽기 그지없다.

생수를 한 병 사려고 발걸음을 옮기는데 느긋하게 쓰레기 더미를 헤집고 있는 개 한 마리 옆으로 뒀다. 작은 움직임이 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 더러운 이불을 뒤집어 쓴 걸린 한 명이 몸을 아꼈다.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한 채 누군가 먹다 버린 빵조각을 주워든다. 그리고선 손바닥으로 묻은 흙을 털어내는데 이 비참한 모습이 진짜 현실인가 눈을 의심하게 한다. 그저 살기 위해~ 죽기

위하기 위한 필사적인 행동으로만 보일 뿐,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은 생각해 볼 수도 없다.

세상은 첨단과 극을 향해 달려가고 인간을 속박했던 온갖 전통적 족쇄가 사라진 지 오래지만, 아직 몇몇 곳은 신분제도를 내세워 사회 구성원에게 가족하다. 바로 인도가 그렇다. 카스트에 따른 인도인의 신분은 브라만(승려), 크샤트리아(왕이나 귀족), 바이사(상인), 수드라(피정복민 및 노예, 천민) 등 4개로 구분되며 최하층인 수드라도 속하는 않는 불가촉천민(Untouchable)이 있다.

불가촉천민은 '이들과 닿기만 해도 부정해진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부른다. 이들은 흡사 짐승 취급을 받으면서 가장 천하고 불결하고 지저분해 보이는 일을 도맡아 한다. 지금도 농촌에서는 상층신분 사람들이 접촉을 꺼려 천민들끼리 우물을 따로 쓰고, 도시 생활을 할 경우 한데 모여 산다.

그들 중 상당수는 구걸을 하며 산다. 어느 사회든 가난한 사람, 남의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은 있기 마련이지만, 인도에서는 자주 눈에 띈다. 가난에 찌들려 거리로 내몰린 이들은 길 한 구석, 육교 밑, 횡단보도 옆, 으스스한 공터에 가리지 않고 보잘 것 없는 집을 꾸민다. 어른들이야 그렇다 치고 가족과 사회로부터 따뜻한 보호를 받아야 할 어린 아이의 철부지들까지 길거리를 헤매다가 아무데서나 쓰러져 잠든다. 이러한 인도 걸린 아이들 가운데 다수는 상습 음주자, 마약 투약자, 매독 환자,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이다. 그렇게 미숙한 나이에 육체적, 정신적으로 망가지고 병든 아이는 아무런 도움 없이 죽어간다.

기름과 먼지로 뒤덮인 칙칙한 머리, 까맣고 갈라진 피부, 누렇게 벌어진 이와 새까



인도 델리의 자마마쉬드 광장.



인도 뭉바이 인디언 게이트.

망게 때가 긴 손톱과 발톱, 상처가 끓었는지 발가락이 잔뜩 부어있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제대로 성장하지 못해서인지 신체 중 일부가 불균형하게 말라있거나 손실되어 있기도 하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스스로 사람이기를 포기한 것처럼 보이는 이들의 눈빛과 행동. 절망감이나 슬픔이 배어있기 보다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뻔뻔스러워 보이니까지 한다. 그래서인지 이들을 만나면 동정심이 느껴지기 보다는 마치 나와 다른 종류의 존재를 보는 듯한 묘한 기분이 들기도 한다.

city palace 입구 근처 온통 쓰레기로 가득한 길바닥에 아무렇게나 얹드려 땀겨쳐진 사내의 몸통이 온통 파리로 뒤덮여 있다. 흑시 죽은 것은 아닐까 싶어 마음이 언짢지만 하다. 꽤 오랜 시간 관람을 마치고 돌아 나오는데도 그 사내는 그 위치에 그대로 있다. 하지만 그 자세가 조금은 달라져 있어서 죽지는 않았나 보구나 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한다.

왕의 궁전 앞엔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파는데 주로 곡물과 과일들 그리고 제단에 바치는 향 따위다. 사람들이 먹는 것을 팔기도 하겠지만 가만 들여다보니 동물들에게 줄 먹이를 파는 장사치들 같았다. 줄지는 장사치들 뒤로 넓은 터가 있는 곳에 당도하니 소, 염소, 원숭이며 새 때가 가득 한곳에 모여 바닥에 흠뻑리진 먹이를 먹느라 여념이 없다.

그런데 한쪽에서 쓰다 버려진 몽당만 빗자루로 누군가에게 쫓기는 것처럼 눈치를 보가며 불안한 눈빛과 바쁜 손놀림으로 곡물을 봉지에 넣어 담는다. 그 후로 동물들이 먹어야 하는 것을 왜 가져 가느냐며 못 가져가게 크나큰 막대기를 휘두르는 중년여자의 한바탕 소동이 있었다. 소란스런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염소는 아무 일 없었었다는 듯 다시 고개를 숙여 먹이를 먹기 시작. 능숙한 솜씨로 바나나 껍질을 벗겨낸 원숭이도 아무 문제없다는 듯 개걸스럽게 한입 베어 문다.

이 기이한 광경을 바라보며 여러번 생각해 본 우리 일행들. 옆으로 곡물을 짊어진 소년과 소녀가 활짝 웃으며 마치 전장에서 승리라도 한 듯, 큰 노획물을 획득이라도 한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발걸음을 옮긴다.

무심과 무감으로 걸어가는 여행. 인도에서는 그러한 덧없음을 배우게 된다. 세상은 그저 하염없이 제 갈 길을 가고, 여행자도 자기 갈 길을 가는 것이 소임이다. 따지고 보면 인생도 그렇다. 관여해서 좋은 일 없다. 지켜보는 것. 기다려주는 것. 참아내는 것.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자기 갈 바 행로를 찾아 이동하는 것.

김해성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
-개인전 20회
-퀼아트페어, All About Korea (White Box, Munich, Germany) 등 단체전 500여회
-조선대 평생교육원 전담교수, 한국미술협회 이사, 선과 색 회원



※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송년·신년모임 지금 예약하세요!

지난 30여년, 광주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모임을 정성껏 모셔왔습니다.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아리랑하우스에서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since 1981
36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1등맛집 연속 선정
광주의 대표맛집

광주금수장호텔
GEUMSOOJANG HOTEL